



것으로 가정한 ‘부착율 100%’에 있어서는 모든 영각에 대해 연직와류진동이 발생하지 않았다. 그러나, Vane의 부착율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, 연직와류진동이 발생하게 된다. 또한, 본 교량의 중앙경간부에 있어서 Vane 실제 부착율이 51.4%인 점, 그리고 와류진동에 대한 사용성 기준(변위의 관점)이 약 8cm인 점을 고려하면, 중앙경간부에 있어서 Vane의 부착율을 70%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



그림 3. 불연속적인 Vane의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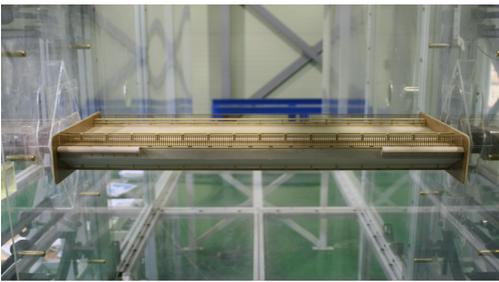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Vane 부착율 41.2% 보강거더 모형

이러한 검토결과에 근거하여, 보강거더에 발생한 와류진동 제진을 위한 Vane의 설치구간을 결정하였다. 주탑에 가까울수록 제진성능이 비효율적이므로, 양주탑으로부터 중앙경간의 15%에 해당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70% 구간에 대해 그림 6과 같이 Vane을 설치를 계획하였다.

즉, Vane의 현재 설치구간에 대해 양쪽으로 17m씩, 총 34m를 추가로 설치하되, 기존의 케이블 정착단의 간섭에 의한 Vane의 불연속 구간도 가능한 연속화하도록 개선시공의 계획을 수립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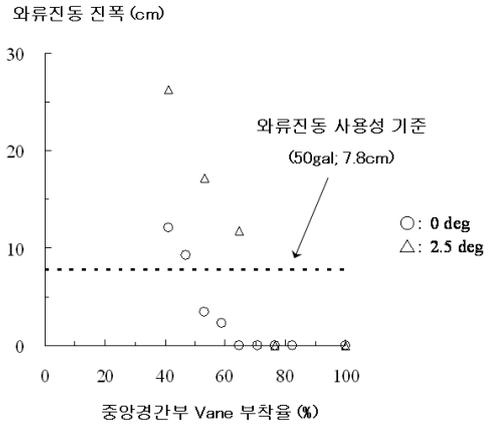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Vane 부착율에 따른 와류진동 진폭

#### 4. 결론

본 교량의 중앙경간부에 대한 Vane의 개선시공은 2008년 9월말 완료되었으며, 현재까지 보강거더의 와류진동 및 이상진동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.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교량의 공력진동 발생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

#### 감사의 글

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(주)티이솔루션과 전북대학교의 권순덕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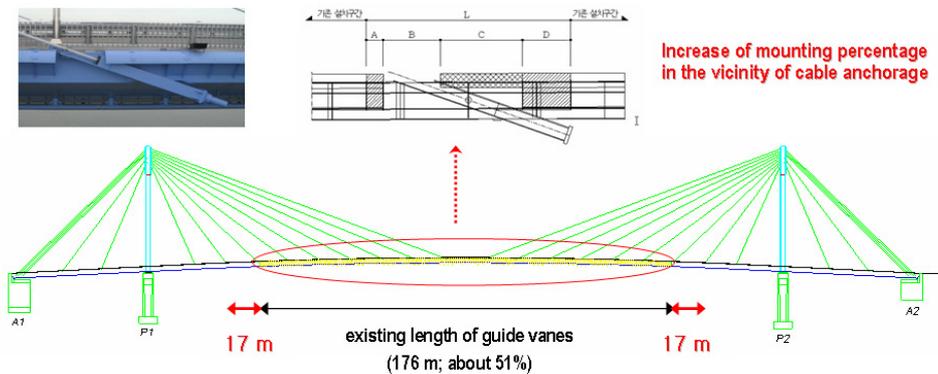


그림 6. Vane의 개선시공안